

미혼모의 입양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접근-

임 해 영⁺

(성균관대학교)

이 혁 구⁺⁺

(성균관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미혼모가 경험한 입양결정 과정의 전반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Rennie가 제안한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91개 의미단위, 46개 하위범주, 11개 해석학적 범주가 구성되었고, 연구 참여자들의 입양결정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는 '모성의 밀어냄과 끌어안음의 이중성 속에 새겨진 흔적안고 살아가기'로 상정되었다. 미혼모들의 입양결정 과정은 임신 인지, 현실 회피, 입양 탐색, 혼란 증폭, 결단, 합리화 혹은 상실의 단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혼모의 입양결정 과정은 모성 실현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미혼모, 입양결정 과정, 해석학적 근거이론, 모성 실현, 심리사회적 지지프로그램

1. 서론

미혼모(未婚母)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감행한 여성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정상 규범인 결혼제도 안에서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을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미혼모는 미혼모가 되는 순간 미혼모 문제로 전락하게 된다. 반면,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혼모의 모성을 강조하는 리틀맘, 싱글맘 담론이堂堂하게 살아가는 어린 엄마의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서정애, 2009: 3), 젊은 여성에게 미혼모는 불가능한 삶이 아닌 가능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엄중한 사회문화적 낙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이들의 모성을 가지 있는 것으로 여기는 모순된 사회 담론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미혼모의 수는 점진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도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 특히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²⁾,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입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급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전에 비해 미혼모의 모성 양육을 지지하는 사회적 담론과 국가 정책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입양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³⁾.

그렇다면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이들은 입양을 선택하게 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모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입양 선택 과정의 중요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부각시키고자 한다.

첫째, 미혼모의 모성 양육의 증가와 미혼모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강화 속에 배제되고 있는 입양 선택 미혼모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무엇보다 미혼모의 모성 양육을 이전에 비해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법, 정책, 서비스가 선회한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모성 구조로서 성별분업에 기반한 모성신화가 그 밑동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제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평균적 성인 생활의 필수조건이고, 자녀가 있음으로서 온전한 가족이 이루어지며 자녀는 남의 손에 맡기는 것 보다 어머니가 돌보는 것이 좋고, 어머니는 본능적인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지배적 생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노영주, 1998: 2).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미혼모 또한 자신의 아기를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본능적 모성을 가진 존재로서 채색되고 있으며, 비록 정상가족의 규범은 아닐지라도 미혼모의 아기도 남의 손에서 키워지는 것보다 친모에 의해 직접 양육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담론을 출현시키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담론을 자명하

- 1)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임신율이나 미혼모의 모집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련 조사를 통해 미혼모의 증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통계청 자료(2008)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에 따른 혼인 외자 출생아수는 2003년 6,082명, 2005년 6,459명, 2007년 7,77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혼모 모자시설 입소자 수는 2003년 2,246명에서 2008년 2,991명으로,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5년 202명에서 2008년 391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혼모 관련 시설(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도 2004년 21개소, 2006년 36개소, 2010년 57개소로 급속하게 확충되는 추세이다(김혜영 외, 2009: 29; 이미정, 2010: 11-17)
- 2) 2011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입양기관에서 2015년부터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개정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보낼 아기에 대한 친부모의 친생자 출생 신고, 입양숙려제도 등을 도입하여 친생가족의 양육을 우선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이미정 외, 2011: 172; 최승원 외, 2011: 11-14).
- 3) 입양 아동의 경우 2000년 4,046명, 2002년 4,059명, 2005년 3,562명, 2007년 2,652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에 있다. 2008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 2,566명 가운데 미혼모의 자녀비중은 85%에 이르고 있다(이미정, 2008: 90).
- 4)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최근 양육미혼모의 담론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대중매체에서 미혼모의 삶은 혼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남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여성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김혜영 외, 2009: 34). 더불어 미혼모의 모성양육을 지지하는 김혜선·김은하(2006: 374)의 연구에서도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아동복지의 측면에서도 인공유산 혹은 입양보다

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전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는 미혼모 자신에게 아기 그리고 그 아기의 입양 선택이 어떠한 경험으로 존재하는가이다. 나아가 이들은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심리내적 과정 안에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에게 모성은 어떤 의미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혼모의 이러한 의사결정 행위는 이후 자신은 물론, 이들 자녀의 삶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금까지 미혼모의 자녀 입양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의 층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일부의 연구에서 자녀 입양결정 요인을 분석하거나(윤미현, 2000; 노충래·김원희, 2004; 허남순 외, 2005; 김혜영 외, 2009; Donnelly and Voydanoff, 1991), 입양결정에 있어 주변 체계의 영향력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김유순·김은영, 2008; 김혜영 외, 2009; 강은숙 외, 2010), 자녀 입양으로 인한 미혼모의 슬픔을 다루는 연구(최승희, 2008), 입양과 양육 집단에 따른 미혼모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이현주, 2011)가 진행되어 왔다. 무엇보다 입양결정 미혼모의 경험을 다룬 국내의 기존 질적 연구(이명순·박주현, 2008)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 연구는 미혼모의 입양결정 행위에 대한 근본적 동기와 사후 영향에 대한 학문적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미혼모의 입양 의사결정의 실태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들이 입양결정으로 나가기까지 어떠한 심리사회적 고뇌와 욕구를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 선택의 결과로 드러나는지 입양결정 과정 전반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체험한 경험 즉, 사태 자체를 연구 자료로 하며, 이해의 해석학적 순환구조 안에서 과학적 설명이 아닌 생생한 인간 체험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근거이론은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의 해석적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해석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양적 연구의 논리적 엄격성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이론은 단순히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에 대한 합의만을 강조하거나, 자료 분석의 절차나 방법에 치중하여 질적 연구로서 갖추어야 할 해석적 풍부함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김인숙, 2011: 359; 김진숙 외, 2011: 88; Rennie, 2007: 9-1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Rennie가 제안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유용한 해석 도구로서 그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근거이론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출발한 연구방법으로, 연구자의 시적·문학적 언어기술이 해석과정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Rennie, 1998; 2000; 2006; 2007). 특히, 이러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이 이 연구에 적합한 것은 미혼모들이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상황에서 어떻게 입양결정으로 나가는지, 그 속에서 어떠한 갈등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 경험의 경로를 따라가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에 의해 겉으로 표현된 언어 속에 포획되지 않고, 그 속에 은폐된 행간의 의미를 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지평을 해석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석학적 근거이론이 Strauss와 Corbin(1990; 1998)의 근거

는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론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미혼모의 자녀 입양결정 과정과 이들에게 자녀, 모성의 본질적 의미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여 유용한 사회복지 정책수립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합법적 결혼제도와 가족관계로부터 이탈되어 임신, 출산을 감행한 미혼모들은 임신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낙태와 출산, 양육과 입양이란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받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소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미혼모의 의사 결정의 문제가 출산결정, 양육 대 입양 결정, 자기결정 세 가지 측면에서 탐색되어 왔다. 먼저 출산결정 요인을 다루는 초기 연구에서는 '낙태시기를 놓쳐서'가 출산 결정의 가장 큰 이유였다면(한국여성개발원, 1984; 한영주, 1998), 최근에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허남순 외, 2005; 김유경 외, 2006; 김혜영 외, 2009). 자녀양육과 입양에 따라 출산결정 요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양육미혼모의 경우, 아이양육 선택이 임신지속의 동기로 작용하였고, 입양결정 미혼모들은 임신중절에 대한 고민, 주저로 인해 적절한 낙태시기를 놓치는 것을 출산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김혜영 외, 2009).

다음으로 입양결정 요인은 경제적 능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고 있고, 아기 장래나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고려,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어린 연령, 가족의 권유 등이 분석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한영주, 1998; 허남순 외, 2005; 김혜영 외, 2009). 또한 자녀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지니거나 최종 학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연령 나이가 높다는 내적 특성이 입양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Donnelly and Voydanoff, 1991). 최근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으며 미혼부 및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가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아기 입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노충래·김원희, 2004). 한편 자녀 입양과 양육에 대한 집단 간 비교연구에서는 입양결정 미혼모들이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은 임신이거나 임신 인지가 늦으며, 결혼전제, 좀 더 질 높은 양육환경 등 사회적 여건을 중시하는 조건적 양육가치관을 지닌 것에 비해, 양육 미혼모들은 상대적으로 원하는 임신이 많았고, 임신 인지시기도 빠르며,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모로서 도리를 중시하는 규범적 양육가치관을 지닌다고 분석하였다(김혜영 외, 2009).

마지막으로 미혼모의 자기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에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김유순·김은영, 2008; 김혜영 외, 2009; 강은숙 외, 2010), 입양결정 미혼모가 양육결정 미혼모에 비해 좀 더 가족이나 아기 아버지의 의사를 높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숙 외, 2010). 미혼모의 자기결정 저해요인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미혼모들의 경우 자신과 자녀 장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력이 없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자포자기적 결정을 내리기 쉽다. 더불어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강압적 태도가 미혼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입양 미혼모의 50% 이상

이 경제적, 제도적 이유로 원하지 않은 입양을 선택하게 되고, 기관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압력, 전문가의 온정주의적 입장,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이들의 자기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승희, 2004).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미혼모의 출산, 입양, 양육결정의 실태와 원인에 초점을 둔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자녀 양육과 입양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 스스로 감내해야 할 다양한 심리내적 갈등 과정에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미혼모를 둘러싼 주변인과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낙인, 편견과 같은 사회문화적 압력, 빈곤과 미혼모 정책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이들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개입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 미혼모의 양육결정과 체험, 입양결정 경험의 의미를 다루는 질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서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경험, 모성경험과 아기에 대한 애착, 자신과 아기 처지에 대한 동일시, 양육선택으로 인한 고통감수, 홀로서기, 죄책감 등 다양한 의미를 포착하고 있다(박숙희, 2001; 이명희, 2007; 최경화, 2006; 김유순·김은영, 2008; 이명순·박주현, 2008). 이들 연구는 미혼모가 자신의 실존 세계에서 겪은 체험의 의미를 당사자의 언어를 통해 드러내줌으로써, 미혼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 역시 미혼모의 양육결정과 체험과정을 친모양육의 당위성 즉, 정상가족 규범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이들 체험의 언어 속에 겹겹이 쌓여 있을 맥락의 중층적 의미를 심도 있게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혼모의 입양결정 과정에 주목해 보고, 이를 통해 이들에게 들이닥친 자녀 입양 결정이란 선택의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과정에서 이들은 어떠한 갈등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갈등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Rennie(2000: 482; 2006: 484-485)는 근거이론 방법론이 의심할 여지없이 해석학이라는 사실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보고, 기존 근거이론의(Strauss and Corbin, 1990: 1998) 통상적 절차와는 다른 방법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를 구성하는 개방코딩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진술 그대로의 기호화(in vivo code)를 강조한다면, Rennie(2006: 495-496)는 범주란 체화된 범주화(embodied categorizing)⁵⁾로서

5) Rennie(1998: 110)는 인간은 체화(embodied)된 존재이며, 인간됨의 특질은 그 체화됨을 구현하는

해석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 텍스트의 의미를 온몸 즉, 기억, 연상, 직관, 어휘 등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적 이해의 지평(horizon of understanding)을 적극 활용하여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범주화 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좋은 범주란 은유적이고, 수사학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언어는 복잡한 의미를 간결하게 상징화 시켜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학적 근거이론에서 범주화는 시작활동(詩作活動)과 유사하다. 두 번째로 Strauss와 Corbin은 줄 단위 분석을(line-by-line)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개념 간 속성과 관계의 지속적 비교를 통해 하위 범주에서 상위범주로 추상화 시켜나간다면, Rennie(2000: 484-485)는 자료에서 의미단위(meaning unit)를 분석해 내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범주가 생성된다고 본다. 예컨대 자료의 의미는 그것의 부분적 의미와 전체적 의미의 해석적 순환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텍스트 전체의 의미는 부분적 의미의 총체화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부분이 각각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전체적 의미의 맥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진권장, 1999: 130). 때문에 의미단위 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핵심적으로 드러내주는 어떤 진술이나 문구를 포착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의미단위들은 전체가 담는 총체적 의미와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Rennie, 2006: 493-495).

다음으로 기존 근거이론(Glaser and Strauss, 1967)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 자료수집과 분석의 동시 수행, 포화의 원칙, 하위범주에서 상위범주로의 범주화, 핵심범주의 발견, 경험적 영역의 실체이론 제시 등의 방법적 절차에 대해 연구자의 유연한 태도를 요청한다(Rennie, 1998: 103-110). 따라서 이 연구는 근거이론에서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방법적 절차를 좀 더 유연하게 따라가면서, Rennie가 제안한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방법적 접근을 활용해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는 입양을 동의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간 미혼모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출산 전후의 입양결정 과정을 좀 더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임신 중후기이면서, 출산 후 면담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입양 미혼모들도 함께 포함시켰다. 연구자는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 방법을 이끌기 위해,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s selec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세평적 사례선택이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연구 참여자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혼모관련 전문종사자 4인에게 8명을 소개받아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 참여를 중도에 포기한 1명을 제외한 총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존재이기에,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하는 행위는 자료(data)를 통해 드러난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자 개인의 육화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사항

구분	연령	학력	면담 시기	출산전후 결정 변화	아기 성별	입양동의 시점	아기입양 사항
1	26	대졸	임신 9개월	입양->입양	딸	출산 후 3일	아기상황 모름
2	29	중졸	임신 9개월	입양->입양	딸	출산 후 7일	국내 비밀입양
3	30	고졸	출산 후	입양->입양	딸	출산 후 3일	국내 공개입양
4	19	고등학교 자퇴	출산 후	입양->입양	아들	출산 후 3일	국내 공개입양
5	25	전문대졸	출산 후	입양->입양	아들	출산 후 7일	국내 비밀입양
6	19	고등학교 자퇴	출산 후	입양->입양	아들	출산 후 3일	위탁가정 양육
7	22	대학교 휴학	출산 후	양육->입양	아들	출산 후 3일	국내 비밀입양

3) 자료 수집

자료는 심층면접과 문서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면접 장소는 미혼모시설, 카페 등지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 시 마다 매번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고 면접 노트를 기록하였다. 면접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폭넓게 청취 하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으로 수렴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1회당 90~120분, 참여자마다 2~4회 면담을 실시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 이메일 등 보충 면담을 통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였다. 문서기록은 참여자가 임신·출산 과정 중에 작성한 일기, 아기에게 쓴 편지, 아기 사진 등을 열람하고 연구메모 후 반환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는 심층면접 기록을 전사하여 원 자료로 사용하였다. 사례별로 원 자료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을 의미단위로 해석해 내고, 그 의미단위가 사례 내 전체적 의미맥락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간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의미단위들을 범주로 생성하고 그것을 해석학적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1개의 유의미한 해석학적 주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11개의 해석학적 주제를 다시 개별 사례들에 대입해 봄으로써 어떠한 공통성과 특이성이 발견되는지를 파악해 보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거쳤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간주관성 확보, 다원화의 방법 2가지를 채택하였다. 먼저 간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참여자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을 거쳐, 이들의 이야기가 왜곡된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 개발과 윤리적 성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론적 민감성 개발은 미혼모 관련 영상물, 수기, 잡지 등의 숙독, 토론회 참여, 관련 종사자와 면담 등을 지속하였다. 윤리적 성찰을 위해서는 면담 과정 속에서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암묵적 의도에 맞게 반응할 수 있으며, 양자 사이에 권력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지속적으로 심사숙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성찰 일지작성을 통해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연구자가 암암리에 강요하거나 은연중에 정해진 답변을 유도하는 경솔한 질문 등은 없었는지를 반성하였다.

다음으로 다원화 방법은 동료 지지 집단 및 미혼모시설 종사자들의 조언과 비평을 통해 이 연구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확보해 나갔다.

4. 연구결과

1) 해석학적 범주 구성과 기술

(1) 입양결정의 해석학적 범주 구성

전사한 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1개 의미단위와 46개 범주, 11개 해석학적 범주로 구성하였다.

〈표 2〉 입양 결정 경험의 해석학적 범주 구성

의미단위	하위범주	해석학적 범주
임신이라니 꿈에도 생각 못함, 18주가 돼서야 비로소 임신을 알게 됨,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야 자각하게 된 임신, 입덧 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림, 입덧 생각은 못하고 몸이 아픈 걸로만 생각함	뜻밖의 사건	임신 인지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짐작, 임신할 수도 있다는 현실인식이 부족함, 피임을 하지 않은 불안감이 임신사실로 드러남	설마가 현실로	
임신 초기에 바로 눈치 챈, 성관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임신을 바로 알아챈	초기에 알아차림	
주변 사람들이 알까봐 낙태를 생각함, 할머니에게 들킬까봐 낙태를 서둘러 알아봄, 엄마 몰래 지우기 위해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함	발각에 대한 두려움	낙태 압력
아이아빠가 애 유산 말을 먼저 꺼냄, 부모님도 처음엔 낙태를 권유함, 헤어진 남자친구가 낙태를 원함	주변인의 종용	
처음엔 아기아빠와 지우기로 서로 이야기 함, 아이아빠도 아이 지우는 것을 수긍함, 상대남자도 낙태 비용을 보태겠다고 했음	암묵적 합의	
엄마에게 임신을 들켜버림, 새 남자친구가 임신사실을 알게 됨, 숨겨온 임신사실이 새엄마에게 들통 남	들켜버린 임신	낙태와 출산의 기로
생명인데, 아기 잘못이 아닌데, 아기심장 소리를 듣고 차마 지울 수 없음, 초음파검사를 통해 아기의 생명을 느낌	생명성에 대한 자각	
자포자기 심정으로 임신을 외면해 버림, 해결 노력보다는 임신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함	임신헌실 회피	
애 아빠에 대한 실망감에 무기력해져 어찌하지 못함, 임신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며 차일피일 미룸, 임신에 대한 당황스러움	시간에 내맡겨버림	

<p>움에 무작정 시간을 보내버림</p> <p>감당할 수 없는 낙태비용, 턱없이 부족한 낙태비용에 자포자기 함</p>	<p>해결할 수 없는 비용</p>	<p>출산상황으로 내몰림</p>
<p>낙태를 고민하면서도 그냥 시간을 지체함, 아이 아빠와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낙태시기를 놓쳐버림, 낙태시기를 놓침</p>	<p>놓쳐버린 시기</p>	
<p>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에 낙태를 포기함,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낙태를 포기함</p>	<p>산모가 위험함</p>	
<p>자격지심이 느껴지는 공간,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미혼모라는 이름으로 아이 낳아 키울 용기가 나지 않음, 임신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부모님이 노심초사함, 부모님이 임신으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까 안절부절 함</p>	<p>주변의 눈초리</p>	<p>입양을 향해 내달리는 심리적 추동</p>
<p>주변의 시선이 느껴지는 시설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음, 스스로도 미혼모에 대한 선입견 가지고 있었음, 인식이 좋지 않은 미혼모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함, 다른 미혼모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싫음</p>	<p>쉬이기 싫음</p>	
<p>아기아빠에게 치가 떨림, 낳아 키우길 거부하는 아이아빠에게 배신감을 느낌, 뱃속 아기를 부정하는 남자친구에게 분노를 느낌, 만삭인 나를 비아냥거리는 아이 아빠를 경멸함</p>	<p>반동 심리</p>	
<p>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아 함께 낳아 키우고 싶음, 뱃속 아기에 대한 원망감이 차오름, 몸이 힘들어 뱃속 아기를 원망하기도 함, 심한 태동에도 일부러 정주지 않으려 노력함</p>	<p>밀어내고만 싶은 뱃속 아기</p>	
<p>부모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낌, 아버지가 무서워 오직 입양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음</p>	<p>두려움의 엄습</p>	
<p>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아이 입양을 생각함, 임신 사실을 안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냄, 임신한 나를 숨기고 싶어 하는 엄마를 이해함</p>	<p>가족체면 유지</p>	
<p>부모님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음, 아이아빠가 내 상황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음, 나에 대한 친구들의 이중적 시선이 불쾌함, 임신으로 변해버린 외모 스트레스에 우울해짐</p>	<p>자기보존 욕구</p>	
<p>엄마가 양육을 확고하게 반대함, 처음부터 입양만을 중용하는 엄마, 아이 아빠가 동의했다면 충분히 양육을 결정했을 것임, 엄마는 오직 입양만을 고수함</p>	<p>이해당사자 반대</p>	
<p>친한 언니의 조언이 입양 결정에 도움을 줌,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입양에 대한 나쁜 편견이 바뀜, 함께 사는 시설양육모를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실감함, 함께 생활하는 양육모를 보면서 오히려 입양을 생각함, 단짝친구의 조언이 입양결정에 도움이 됨, 시설 선생님의 조언이 도움이 됨</p>	<p>주변체계 영향</p>	<p>입양 선택의 명시적 이유</p>
<p>직업적,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음, 경제적으로 풍족한 양육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함, 엄마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까봐 양육을 내비치지 못함,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엄마가 아이를 입양보내길 원함</p>	<p>경제적 부담</p>	
<p>자신의 미래를 가꾸어 가는 게 더 중요함, 능력 있는 여성이 되고 싶음, 갈등이 되긴 하지만, 지금은 내 미래가 우선</p>	<p>내 미래설계가 우선</p>	
<p>아기에게 제대로 된 가족을 줄 수 없어 입양을 생각함, 꿈꾸었던 가정에서 키울 수 없기에 양육을 크게 고민하지 않음, 양육의 현실적 어려움에 비중을 둬, 아기에게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할 것 같음, 능력 있는 양부모가 키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함</p>	<p>현실적 양육조건 참작</p>	

양육을 선택해서 아기를 원망할까봐 두려움, 아기에 좋은 엄마가 되어줄 자신이 없음, 준비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함	좋은 엄마 자격	
아기 100일 잔치 모습에 양육과 입양사이에서 흔들림, 시설 양육미혼모들을 보면서 키우고 싶은 유혹을 느낌, 나라고 못 키울까 하는 생각에 자꾸 마음이 흔들림	시선을 붙잡는 아기양육의 모습	
함께 키우자는 새 남자친구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림, 부모님께 허락받고 아이를 키워볼까 생각도 잠시 해봄, 아빠가 허락만 해주면 바로 키울 수 있음, 힘이 되는 가족과 함께 아기를 키워보고 싶기도 함	심리적 지원군	깊어지는 고집
눈앞에 다가온 입양 현실의 알 수 없는 불안감, 보낼 수도 키울 수도 없는 혼란한 마음, 친엄마대한 그리움과 아기연민이 섞여 마음이 복잡해짐	복잡 미묘한 심정	
태어나게 될 아기에 대한 관심의 시작, 뱃속에 있을 때 원망만 한 것이 아기에게 너무 미안함, 심한 태동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엄마일 뿐임, 임신 중 함부로 한 행동이 아기에게 미안함, 태동하는 뱃속 아기에게 그윽한 모성을 느낌,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태교를 해주려고 노력함, 태교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 죄책감에 충격을 받음, 태동을 통해 아기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낌	핏줄이 당겨움	
태어난 아기를 본 순간 만감이 교차함, 아기에 대한 예뻐함과 안쓰러움에 흔들리는 마음, 아기를 본 후부터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요동쳐움, 내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내 아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고민이 다시 시작됨, 돈만 있으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유흥업소도 알아봄, 출산 직후 내 자식이라는 느낌에 마음이 흔들림, 태어난 아기를 보고 키우고 싶은 생각을 충동적으로 함	에타는 모정	
공개입양을 해서라도 아기와 끈을 놓고 싶지 않음, 둘째 입양을 원하는 부모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인지 알아봄, 내 아이를 입양할 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봄, 해외입양이 국내 입양 조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함, 입양과 양육조건을 상세하게 따져봄	입양조건 탐색	숫구치는 모성 발현
아기 입양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아짐, 내 아기가 입양 후에 불행하게 성장할까봐 염려됨, 입양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어할 아이가 걱정됨, 아이가 입양되어 문제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걱정됨, 해외입양이 안되면 그 이후가 고민됨	입양이후가 염려됨	
특별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고 또 바람, 아기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해준 엄마이고 싶음, 떠나보낼 아기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함, 입양하지만 아이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함, 진심을 담아 입양 보낼 아기에게 편지를 씀, 헤어져야 할 내 아기를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함, 입양된 아기에게 상처가 될까봐 영원히 그림자 엄마로 존재하고 싶음, 입양된 내 아기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줌, 입양 보낸 아이와 다시 만날 날을 위해 매일 일기를 씀, 내 자식이 성장해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음, 키우지 못해도 내가 아이를 가장 많이 생각 하는 사람일 것임, 입양 보낸 아기에게 여전히 엄마의 존재이고 싶음	부인할 수 없는 엄마의 자리	

<p>병원퇴원 후 일부러 아이를 보러 가지 않음, 애기가 엄마 닮았다고 말하는데도 못들은 척 함, 애기보고 결정이 흔들리는 미혼모들을 보면서 일부러 애기를 보러가지 않음</p>	<p>흔들리는 마음 다잡기</p>	
<p>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내 아이를 보지도 않고 입양 보냄, 입양을 완강히 고수하는 아버지로 인해 출산 직후 입양에 바로 동의함,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바로 입양절차가 진행됨, 입양을 망설일까봐 빠른 결정을 독촉해대는 엄마</p>	<p>부모 압박</p>	<p>결단의 몸부림</p>
<p>선택을 서두르는 시설종사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낌, 시설 직원의 재촉이 결정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함</p>	<p>시설재촉의 부담</p>	
<p>마음을 다잡고 입양동의서를 작성함, 애기의 미래를 생각해 입양을 결단함, 입양하는 자신의 처지가 가혹하지만 결정해야 함, 버리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라 다짐하며 입양을 확정함</p>	<p>독한 결정</p>	
<p>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기를 고대함, 입양선택 후 입양의 긍정적 측면만을 생각함, 입양될 가정에서 밝고 당당하게 자라주기 희망함, 아이를 많이 사랑해줄 수 있는 양부모이길 희망함, 목사님 덕이라면 잘 키워주실 것 같아 안심이 됨, 새로운 가족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램</p>	<p>입양 결정의 긍정적 기대</p>	
<p>입양 결정을 후회하고 싶지 않음, 자신보다는 좋은 부모한테 자랄 것을 알기에 결정을 후회하지 않음, 최선의 선택이기에 입양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음</p>	<p>후회 없는 결정</p>	
<p>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나를 경험함, 역지사지로 엄마 마음이 되어봄, 사람을 만나는 것에 신중해짐, 사람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됨, 성적 행동에 대해 책임감이 생김, 사회복지사가 되어 비슷한 상황의 미혼모를 돕고 싶음, 아이 아빠에 대한 상처로 사람에게 대한 경계가 생김, 작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음, 임신·출산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음</p>	<p>변화된 나와 마주함</p>	<p>자기합리화 만들기</p>
<p>아기를 지우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고마운 엄마들이라고 말하고 싶음, 입양 미혼모에 대해 안 좋은 편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음, 보수적인 사회적 시선을 느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하지 못함, 미혼모에 대해 나쁜 편견으로 보지 않았으면 함, 입양 미혼모에 대한 안 좋은 사회적 시선을 느낌, 입양 보냈다고 해서 내 자식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음</p>	<p>항변 욕구</p>	
<p>아기 입양 보내고 한 달 정도 그냥 멍하게 생활함, 선택을 제대로 고민해 볼 시간 없이 얼떨떨하게 아기를 입양 보냄, 아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보낸 입양이 황당할 뿐임</p>	<p>어리둥절함</p>	
<p>자식을 버렸기에 죄지은 엄마일 수밖에 없음, 시설 양육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보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커져옴, 자신은 아이를 버린 나쁜 엄마임</p>	<p>죄책감이 덮쳐옴</p>	
<p>임신한 친한 언니를 보면서 아기생각에 마음이 울적함, 입양 후 불쑥불쑥 아이 생각이 떠올라 우울해짐, 입양 보낸 아기가 갑자기 떠올라 슬퍼짐, 아이 입양은 내 가족에게도 슬픈 일임, 입양 보낸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서글퍼짐, 입양 보낸 아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옴</p>	<p>애달픈 마음</p>	<p>상실의 아픔</p>
<p>입양 보낸 아이를 생각하면 많이 미안해짐, 주변 아이들을 보면 아기가 불현듯 생각나고 미안함, 지켜줄 수 없기에 입양 보낸 아기에게 많이 미안함, 입양 보낸 아기에게 깊은 미안함이 있음</p>	<p>미안지심</p>	

(2) 입양결정의 해석학적 범주 기술

① 임신 인지

연구 참여자들은 “첫사랑(참여자 4)”과 낭만적 연애의 과정의 일부로, 혹은 “한두 번 아무 것도 아닌 (참여자 2)” 잠시 스쳐가는 만남과의 성적 욕망의 분출로, 또는 “거부하면 떠날까봐 무서워서(참여자 5)”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성적 관계를 경험 하였다. 그러나 피임에 대한 실질적 준비가 부족하고 임신에 대한 어렴풋한 불안감은 있으며, 현실적인 체감 능력이 떨어지는 무방비 상태에서 임신이란 낯선 경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설마! 임신 그것은 생각도 못하고요, TV에서 여자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생활이 불규칙하면 생리불순이라 그러고, 그때 한창 식도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검사 검사 ‘한번 점검이나 받아볼까’ 생각도 들고, 근처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설마 했죠. ‘임신이에요’라고 들었는데도 안 믿었죠.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계속 확인했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멍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참여자 1>

이처럼 이들은 스스로 원하지도 않았고 혹시라도 일어날까 두려웠던 임신이란 사태 자체에 휘말려 들게 되고, 임신 사실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불안감이 뒤섞인 채 자신의 임신 상황과 마주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이 낯선 경험 세계에 진입하기에, 앞으로 벌어질 자신의 불안한 미래가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짐작만 할 뿐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임신상황을 현실적으로 직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② 낙태 압력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적 행위는 자유롭게 이루어진 선택이었던 반면, 임신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몸속으로 불현듯 침투해온 한 생명을 온전히 자각해내지 못한다. 단지 “어떻게든 엄마 몰래 지워야 되는(참여자 6)” 발각에 대한 두려움과 “월급 받아서 수술비 보태겠다는(참여자 1)” 상대 남자와의 낙태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통해 손쉬운 절차적 방법으로 낙태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임신한 거 맞아, 아니야(참여자 4)”라며 계속 확인하려드는 주변사람들에게 임신 사실이 들뜬 나게 되고, “당장 지워라(참여자 1)”는 주변인들의 중용으로 인해 낙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점점 짓눌리게 된다.

처음에 둘이 임신테스트기 가지고 화장실에 같이 들어갔어요.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해’하니까, 개가 우는 거예요. 키우면 안 되겠냐고 울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냐,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키우냐 말이 되냐’ 같이 울었어요. 자기가 능력이 안돼서 미안하다고, 계속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믿었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지울 방법을 찾아보자’ 했어요. 처음에는 개도 그러자고... 서로 말을 했던 말이에요.<참여자 6>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뱃속 아기는 몸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미처 인식되지 못한다. 오히려 원했던 존재도 아니고, 드러나서도 안될 은폐된 존재의 자리로 위치시킨다. 그래서 이 존재는 생명성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한 형체가 없는 무명의 타자로 여겨질 뿐이다. 결국 참여자들은 이 타자가 자신의 모태를 매개하여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가 아닌, 이 몸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떨쳐내 버리고 싶은 혹 덩어리처럼 당혹스러운 존재로 낙태 압력을 받게 된다.

③ 낙태와 출산의 기로

그렇다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무겁게 짓눌러오는 낙태의 내외부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낙태 감행으로 탈주하지 못하였을까? 이들은 “강낭콩 같은 애가 심장이 뛰고, 울컥해져서(참여자 7)”와 같이,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아기가 살아 숨 쉬는 생명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 에이 몰라(참여자 6)”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임신 상황을 회피해 버리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시간을 지체해(참여자 1)”버림으로써, 낙태와 출산의 갈림길 속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일을 그만두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 잠깐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임신이 겹쳐지니까, 아예 그냥 모르겠다. 자포자기, 풀어나버리는 상태였어요. 저한테 암울한 시기잖아요. 그런 게 닥쳐서 제 상황이 무너지니까 일난 김에 꼬일 대로 꼬여보자. 자포자기, 그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또 버리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요.(참여자 1)

이처럼 아기에 대한 생명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임신 현실에 대해 완벽하게 두 눈 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외눈감기 상태로 자신의 상황을 시간에 내맡겨 버린다. 이것은 이제껏 형체도 없고, 온전한 생명성도 부여받지 못한 뱃속의 타자가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드러내면서 하나의 주체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이것을 자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정하지 못하고 기로에 선채 서성대고 있다.

④ 출산 상황으로 내몰림

낙태와 출산의 기로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궁지에 내몰리게 된다. 이 궁지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문제’, ‘놓쳐버린 낙태시기’, ‘산모 위험’과 같은 낙태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들이 부상하면서,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출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제 출산은 수용해야 할 현실이 된다.

낙태를 하려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되니까,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제가 임신을 했는데 낙태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100만원을 받아냈어요. 근데 나이 속이고 가서 낙태하려고 보니까, 이미 100만원이 훨씬 넘는데요. 그래서 돈이 모자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딱 이것저것 사먹으면서 돈 다 써버리고... (참여자 4)

⑤ 입양을 향해 내달리는 심리적 추동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한 생명을 자신의 뱃속에 떠맡아야 됨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 떠맡음은 마지못해 이루어진 떠맡음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내 몸이란 거처에서 잠시 함께 거주하도록 허용하는 떠맡음일 뿐이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의 이후 삶의 여정에 이 생명과 함께할 수 있는 여지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들은 뱃속 생명과 자신의 심리적 경계를 구획해 놓는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이러한 심리 내적 경계를 입양을 향해 내달리는 심리적 추동으로 해석하였다.

시절에 7개월에 들어갔으니까, 그 전까지는 애 성별을 몰랐잖아요. 진짜 잘 움직였어요. 여자면 장군감이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애가 진짜 아플 정도로 배를 차고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보내야 되니까... 그냥 정주고 싶지 않아서, 심하게 차고 그래도 아예 모르는 척, 딴 생각하고 그랬어요.<참여자 6>

또한 “동네에 알려지면 시집 못갈 수 있고, 좋을 게 없다고(참여자 5)”하는 주변의 눈초리를 신경 쓰는 것, “애 키운다고 말 한마디라도 꺼냈으면, 아마 집에 다시는 못갈 수 있는(참여자 4)”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의 엄습, “결혼하기도 전에 애를 낳는 일이 부모님께는 창피한 일인데(참여자 5)”처럼 가족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이 뱃속 생명은 하루 빨리 낳아서 은밀하게 보내져야 할 잠재적 처리 대상자로 존재한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사회적 시선과 문화적 낙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의식 깊숙한 곳에서 뱃속 생명에 대해 부여하는 실존적 의미를 자각해내지 못한다.

임신했어도 ‘아! 애 몸조심해라’, 이런 얘기 거의 언급 안 하셨어요...(중략)... 그래서 제가 밥도 집에서 먹을 수 없었어요. 눈치 보여서... 엄마가 애를 싫어하니까, 내가 밥 먹는 모습도 밉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 주무실 때 몰래 가서 소리 나니까 한 주걱 떠서 맨밥 먹고... 그런 게 엄마한테 많이 서운했죠. 나도 애도 다 싫어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게 아니니까,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그저 숨기고만 싶어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더욱이 이들에게 “미혼모라고 하면 문제아란 의식이 있었는데(참여자 3)”, “이 무리 안에 내가 있는 게 너무 창피한(참여자 1)” 것처럼, 자신들이 편견의 대상인 미혼모들과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섞이기 싫음이 존재한다. 더불어 “뒤에서 호박씨 까는 애들한테 내 상황이 알려지는 게 자존심 상하는(참여자 6)”처럼 자신의 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기보존 욕구로 인해, 출산을 곧 입양으로 등식화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더구나 “지 자식이 아니래요. 니 알아서 하래요(참여자 6)” 처럼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길 기대했던 상대 남자의 배신감에 대한 반동 심리로, “이 애가 그냥 싫었어요. 짐 덩어리처럼(참여자 3)” 밀어내고만 싶은 뱃속 아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겨나 자신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뿐이다.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사감선생님이 계셨고 TV에서 노래방 장면이 나왔는데, 어떤 언니가 ‘노래방도우미 했던 시절이 생각난다면서’... 선생님이 몇 초간 아무도 말을 못하셨어요. 순간 당황하신 거예요...(중략)... 나중에 제가 화를 좀 냈어요. 그분한테. 뭐하는 거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말 좀 가려서 하라고’, ‘행동을 저렇게 했으니까, 결혼도 안하고 어린애들이 여기 들

어 왔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냐고... 저는 싫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 거. 그러니 누가 여기 있고 싶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 나가자 하는 거죠.<참여자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뱃속 아기와의 불편한 동거 속에서 아기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 한 구석에 그것의 구심력으로 작동하는 끌어안음이 이중성으로 뒤섞여 있다. 그리고 이 이중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하지만 그것의 존재론적 의미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⑥ 입양 선택의 명시적 이유

연구 참여자에게 아기는 밀어내고 싶지만, 밀어낼 수 없는 이중적 존재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시선과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사회가 부여한 삶의 문법과 논리에 따라 자신의 아기를 입양 보내야 할 명시적 이유들을 찾기 시작한다. “엄마는 무조건 애기 보내라고(참여자 3)”하는 구술에서 보듯, 아기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자신의 가족, 상대남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더불어 “니가 감당하기 어렵다(참여자 5)”는 주변 체계의 영향, “애 키우는데 금전적인게 제일 크다(참여자 7)”는 경제적 부담, “제대로 된 가족을 줄 수 없는(참여자 2)” 양육의 현실적 조건들을 참작하면서, 이것은 아이 입양을 선택하는 분명한 이유로 부각된다. 또한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한(참여자 1)” 것처럼, 자신의 미래설계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참여자 6)”와 같이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격지심은 입양을 선택하는 구체적 이유로 작동한다.

저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한테 욕심이 많아가지고, 애를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저한테 소홀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일단 제 미래를 먼저 생각하게 되요. 여기 나가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예전에 호텔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전공이 관광이어서. 지금은 공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중략)...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 삶이 먼저인 것 같아요.<참여자 1>

⑦ 깊어지는 고심

그렇지만 함께 생활하는 미혼모들의 아기 양육하는 모습이 시선을 붙잡고, “새 남자친구가 같이 키우자는 말을 했어요(참여자 1)”처럼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심리적 지원군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뱃속 아기는 밀어내고만 싶었던 익명의 타자가 아닌, 끌어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의미 있는 주체로 다가오면서 고심은 다시 깊어진다. 더욱이 “막상 입양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해(참여자 1)” 지거나, “나처럼 우리 애기도 친엄마에 대해 궁금해 하겠지(참여자 4)”하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뒤엉키면서 이들의 감정적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제가 이미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중간에서 계속 유혹은 들어와요. 키우고 싶다, 키우고 싶다 여기 애기들 보면 진짜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는 게 신기하게 부모랑 똑 닮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닮아서...조그맣고 갓 태어나서 다 이뻐 보이고, 그러니까 ‘키우고 싶다. 키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저런 생

각이 많아져서 우울해져요.<참여자 2>

⑧ 솟구치는 모성 발현

애써 외면하고, 밀어내고 싶은 뱃속 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자들의 생활세계에 하나로 공속되어 은연중에 역동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것은 뱃속 아기의 말 걸어옴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애기 심장소리를 들으면 저도 똑같이 심장이 뛰어요.<참여자 1>”처럼 아기와 상호교감 하기 시작하면서, 핏줄이 당긴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과 동시에 뱃속 아기와 헤어질 것을 예비하지만, 막상 태어난 아기와의 대면은 이러한 모든 이유를 일시에 무력화 시켜버리는 솟구치는 모성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참여자들은 아이와의 첫 만남을 “만감이 교차.<참여자 1>”하거나, “애기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참여자 2>”로 자신의 애타는 모정을 표현하였다.

뱃속에서 애기가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그게 태동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배가 이상해서 그런 거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는데 발도 차고, 많이 구르는 것 같고... 초음파 검사하면 배냇짓을 할 때도 있는데 하품도 하고 웃는 거도 많이 보여줬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하품도 하고, 손가락도 빨고 웃고 하니까... 뱃속에서 나랑 같이 사는 내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울컥해져요.<참여자 5>

더욱이 그동안 밀쳐내고만 싶었던 아기는 ‘내 자식’, ‘내 새끼’로 그 의미가 재 부여되면서, “둘째를 공개입양하길 원하는 분이 좋은 분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인지 물어보는.<참여자 3>” 입양조건을 탐색하거나, “애가 혹시 안 좋게 클까봐.<참여자 2>”하는 입양이후에 대한 염려, “보내야 되니까, 지금 많이 봐두자.<참여자 5>”처럼 부인할 수 없는 엄마의 자리에서 다시 자신의 아이를 바라봄으로서, 이들의 은폐된 모성은 다차원적인 모습으로 분출된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내 애를 이빠 한다고 해도 ‘엄마만 하겠나, 모성에도 있잖아요’ 저는 애를 위해서 모든 걸 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새 엄마는 그렇게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진짜 부모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핏줄이 틀리니까 나중에 가족끼리 폭행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또 친아빠가 아니다보니까 딸을 이성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생각도 들고...<참여자 2>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입양결정 과정은 스스로의 철저한 체험 속에서 그것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이 공리적으로 내세웠던 입양 결정의 명시적 이유들은 분출되는 모성 속에서 순식간에 무화되어 버리고, 입양과 양육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심각한 정서적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다.

⑨ 결단의 몸부림

입양 혹은 양육이란 양극단 사이에 끼어 극심한 긴장감을 경험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애기를

보면 못 보낼 것 같은(참여자 1)”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애기 낳고 퇴원하자마자, 동의서에 싸인 하러 아빠가 오신 것(참여자 4)”처럼, 입양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모의 압박감, “당장 답을 달라(참여자1)”는 시설 재촉의 부담감이 합쳐져 입양을 향한 독한 결정으로 나가게 된다.

병원에서 막 퇴원했는데 내일까지 당장 답을 달라, 이틀 줄테니까 이틀 안에 확실하게 결론지어서 답을 달라,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예스’, ‘노’를 답을 줄 수 있냐고, 이게 하루, 이틀로 결정되는 문제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를 보고나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중략)...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쉽게 결정을 하게끔 재촉하니까, 압박감을 더 느끼는 거죠.<참여자 1>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양 결정의 순간을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참여자 3)”로 표현한다. 이들에게 입양으로의 결단은 칼날 같은 선택의 긴장감을 견뎌내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존의 몸부림 같은 과정으로 해석된다.

⑩ 자기합리화 만들기

선택에 대한 강박감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입양 결단으로 나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양결정 행위에 대한 합리화 전략을 구사해 나간다. 이러한 자기합리화는 자신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선과 방어적 태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 “입양을 결정하고 나니까 입양의 좋은 면만 보게 되거나(참여자 2)”, 입양을 결정하기까지의 연속적 경험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견뎌냈는데, 다른 건 뭘 못하랴(참여자 7)”는 이전과 달라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아이 보내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 좀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못된 사람도 저렇게 될 수밖에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누구나 말 못한 사정은 있겠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이 망가져 있는 사람을 보면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구나 얼마나 힘들었을 까’ 그냥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참여자 3>

또 다른 하나는 입양결정 경험에 대한 방어적 태도이다. 참여자들은 “입양을 선택한 것을 다시 갈등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참여자 1)”고 구술하듯, 자신의 결정을 잘된 선택으로 굳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입양 결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하면서, “애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생각하는(참여자 5)” 보수적인 시선에 대해 자신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항변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남자들이 책임을 못 지는 친구들이 미혼모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남자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 미혼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갈라져요. 근데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했으니까 미혼모가 된 거잖아요...(중략)...근데도 미혼모는 비뚤어지거나 날라리 이런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안지고 도망가는 남자가 더 욕을 먹어야 하잖아요.

〈참여자 5〉

⑩ 상실의 아픔

모성 양육을 포기하고 나 홀로 독자적 삶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은 독하게 입양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불현듯 피어오르는 아기에 대한 그리움, 애달픔, 미안함, 죄책감으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실의 아픔은 “그냥 멍한 상태(참여자 3)” 같은 어리둥절함에서부터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이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 때가 있는(참여자 5)” 애달픈 마음, “지켜주지 못한 거니까, 많이 미안해요(참여자 4)”처럼 보낸 아기대한 깊은 미안지심까지 그 진폭이 크다. 또한 죄책감이란 아픔이 느닷없이 참여자에게 덮쳐오는 식으로 아기를 보낸 상실감은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냥 버렸으니까, 아이한테 죄를 지은 존재(참여자 4)”와 같이 입양 보낸 아기는 참여자들에게 아물지 않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양 사실을 외면 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 연구 참여자들을 압도하기도 한다.

양육하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층이 나뉘어 있어요. 보내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애기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 같고, 책임을 못 저주는 거니까 죄인 같은 마음에 미안하고, 너무 미안한데... 애들 우는 소리 들리면 더 괴로운 거예요.〈참여자 3〉

3) 핵심범주 구성

연구 참여자들의 입양결정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는 ‘모성의 밀어냄과 끌어안음의 이중성 속에 새겨진 흔적’으로 설정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아무리 부정하려해도 이 애 엄마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참여자2)”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애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이지만 그럴수록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연구 참여자들과 자신의 아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부모와 자식관계임을 피력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임신이란 낯선 경험 세계로 진입하게 되고, 곤혹스러움에 낙태를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기 심장 뛰는 소리에 생명이 있다는 것(참여자 7)”을 자각하면서 낙태를 감행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현실을 회피해 버리거나 무기력하게 시간에 모든 걸 내맡겨 버리는 상태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낙태 비용, 낙태 시기, 산모 위험과 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와 부딪치면서, 어쩔 수 없는 출산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산상황을 “차라리 잘된 일(참여자1)”로 치부하면서 현실로 수용한다.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뱃속 아기는 입양 보내져야 할 존재로 자신과 아기 사이에 심리적 경계를 구획해 놓는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 두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랐던 상대 남자의 배신감에 대한 반동심리,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가족체면을 고려하는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부담감, 이 사회의 낙인 대상인 미혼모들과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섞이기 싫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자기보존 욕구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뱃속 아기에게 심리적 경계를 치는 밀어내기 전략을 통해 입양이라는 미래의 가능성을 미리 선택해서, 현재의 긴장과 불안을 희석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밀어내면 낼수록 더 큰 구심력에 의해 안쪽으로 쏠려오는 것처럼, 연구 참여자들과 뱃속 아기는 동일한 생활세계에 공속되어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합일된 존재로 함께 거주해 나간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 맺기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뱃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사는 것 같은(참여자 2)” 활발한 태동과 초음파 검사에서 “손가락 빠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참여자 7)” 같은 아기의 배냇짓을 목도하면서, 핏줄이 당긴다는 혈연의 친밀감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뱃속 아기를 자기 내면 안으로 다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되돌아옴의 원리로 공명한다.

그렇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뱃속 아기와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호흡하는 내적 자기와도 만나게 되지만, 외부세계의 삶의 잣대와 논리를 피할 수 없는 변증법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견고한 사회적 기준이 요구하는 아기 양육의 현실적 기준 예컨대, 경제적 부담, 자신의 미래설계, 양육의 현실적 조건, 좋은 엄마 자격을 참작하게 되고, 이것은 입양을 선택하는 명시적 이유들로 부각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입양 선택으로의 결단은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는(참여자 1)”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중대한 의사결정처럼 보이지만, 출산과 동시에 아기와 직접 대면하면서부터 격동치는 모성에 의해 철저히 무력화되어 버린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심연이 말하는 목소리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운 정서적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천 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뛰어내릴지 물러서야 할지를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양결정의 순간을 “벼랑 끝에 서있는 느낌(참여자 2)”이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이들은 그 높이를 알 수 없는 험준한 절벽 아래로 두 눈 질끈 감고 뛰어내리는 어느 사람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독하게 입양 결단으로 나가게 된다. 이때의 입양 결단은 강력한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낮설고 두려운 선택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 낮설고 두려운 선택의 발자취는 ‘자기합리화 만들기’와 ‘상실의 아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양결정 행위를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온 것 같은(참여자 5)” 일종의 성장경험과 같이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미혼모에 각인된 엄중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 “자신들을 나쁘게만 보지 말아 달라(참여자 7)”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이 두려운 선택의 끝은 고단한 삶의 흔적으로 각인된 골진 주름처럼 깊은 상처의 흔적으로 남는데, 입양 보낸 아기에 대한 죄책감, 깊은 미안함, 애달픔, 어리둥절함까지 다양한 상처의 외양들로 변주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상흔은 “애들 우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더 괴로운(참여자 3)” 것처럼, 불쑥불쑥 연구 참여자들의 가슴을 속을 후벼 파는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아이와 오직 만날 수 있는 시공간은 상실이란 지평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자기합리화 행위와 상실의 아픔을 자신이 결정한 입양 선택의 업보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4)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범주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상에 반응하고 대처, 조절하는 전략의 연속적 연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범주기술, 핵심범주 구성 후 다시 연구 참여자의 구술 자료로 돌아가 미혼모들의 입양결정 과정을 속의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구 참여자가 아래 6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⁶⁾, 참여자 대부분의 입양결정 과정은 임신 인지, 현실 회피, 입양 탐색, 혼란 증폭, 결단, 합리화 혹은 상실 단계로 나타났다.

(1) 임신 인지 단계

연구 참여자들에게 임신 인지는 부지불식간에 진입하게 된 낯선 세계와 같다. 이 낯선 세계로의 들어섬은 일순간에 둔탁한 무언가에 한 대 언어맞은 것 같은 멍한 상태이면서, 동시에 아득한 어지럼증을 느낄 만큼 당혹스러운 사태이다. 이러한 사태가 연출되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임신 인지 과정이 사회적으로 각인된 선입견을 내면화하여 그것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신이란 낯선 세계는 배려의 대상이 되기보다, 부정해야 할 내부 검열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주변인에게 임신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렵거나 당사자 간 암묵적 합의, 들켜버린 임신으로 인해 주변인이 낙태를 중용하는 양상으로 낙태 압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 현실 회피 단계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낙태와 출산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임신 현실을 무능력하게 외면해 버리는 형태로 존재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기의 생명성을 자각하면서 낙태를 감행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에 내맡기며 살아간다. 이것은 임신에 대한 외눈감기 상태로 자신의 임신 상황을 완벽하게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못한 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다. 이것은 임신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임신 이전의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저항감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들은 미혼모이지만 동시에 미혼모가 아닌 채 자신의 임신 상황을 억압하는 것이다.

(3) 입양 탐색 단계

연구 참여자들의 임신 현실 회피는 낙태 비용, 시기, 산모 위험과 같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문제와 충돌하면서, 더 이상 출산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수용의 단계로 이전해 간다. 그러나 이들이 출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부여된 지배적 시선을 오롯이 떨쳐내 버리고, 뱃속 생명에 대한 실존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규범을 내면화하여 아기입양을 향한 심리적 기제를 추동하기도 하고, 입양을 위한 가시적 이유를 징표로 새겨놓기도 한다. 이것은 아기 입양을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적으로 부여된 사회 규범과 양식에 지배적 영향을 받는 경향이 짙다. 때문에 자신들이 아기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따라, 이들의 입양결정 과정은 변화무쌍한 외출타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내지 못한다.

6) 참여자 4는 입양을 강하게 고수하는 아버지 압박에 짓눌려,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입양을 탐색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의 진폭은 다른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 강압에 못 이겨 얼떨결에 아기를 입양 보내고 난 후, 상실감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이 증폭되는 모습을 보였다.

(4) 혼란 증폭 단계

혼란 증폭의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아기와 자신이 함께 교유하는 실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함께 생활하는 시설 양육모의 아기를 통해 향후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현재에서 미리 만나게 되는 과정, 아기와 예비된 헤어짐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의 뒤엉킴은 입양 선택에 대한 깊은 고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심한 태동, 초음파 검사 등 아이와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통, 태어난 아이와 직접 대면하게 되는 역동적 교감은 끈끈한 혈연의 정과 애타는 모정을 촉발시킨다. 또한 이것은 최적의 입양 조건을 탐색하거나, 입양이 잘못될 수 있다는 염려심 등 모성 불안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다차원적으로 솟구쳐오는 모성의 발현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입양 결단을 향한 극적 긴장과 심리적 압박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5) 결단 단계

모성이 발현될수록 참여자들에게 입양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순간으로 압박해 온다. 입양을 결정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극도의 긴장과 강박을 견뎌내면서 이루어지는 실존의 몸부림 같은 과정이다. 왜냐하면 입양을 결정짓는 것은 아기와 나 사이에 놓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벼랑 끝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아기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아기 입양을 완강하게 고수하는 부모 압박, 선택을 재촉하는 시설 부담에 짓눌려 입양 결정으로 나가게 된다.

(6) 합리화 혹은 상실 단계

연구 참여자들의 입양결정의 마지막 단계는 합리화 혹은 상실로 나타난다. 입양을 확정짓는 것은 이 결정으로 야기된 향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고통스럽고 두려운 선택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선택의 결말을 합리화 혹은 상실의 아픔으로 떠안는다. 그래서 자신의 입양결정 경험을 긍정적 체험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방어적 자세로 자신을 합리화 해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덮쳐오는 아기에 대한 안타까움, 죄책감 같은 상실의 상처 속에서 자신의 아기와 아프게 조우하는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미혼모들의 입양결정 과정을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해석학적 범주는 '임신 인지', '낙태 압력', '낙태와 출산의 기로', '출산상황으로 내몰림', '입양을 향해 내달리는 심리적 추동', '입양선택의 명시적 이유', '깊어지는 고심', '솟구치는 모성발현', '결단의 몸부림', '자기합리화 만들기', '상실의 아픔'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는 '모성의 밀어냄과 끌어안음의 이중성 속에 새겨진 흔적안고 살아가기'로 상정되었다. 비록 소수의 참

여자(7명)에게 국한된 내용이지만, 연구 결과 미혼모들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경험한 입양결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의 임신 인지, 대처 과정에는 자신의 임신 현실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저항감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당혹스러움과 막막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의 임신 상황을 현실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주변체계의 영향력 아래 낙태 압력을 받게 되지만, 생명성에 대한 자각으로 시간을 지체해 버리거나 혹은 임신 현실을 회피해 버리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소극적 태도는 자신의 임신사실을 받아드리기 힘든 심리적 저항감과 아기 생명성에 대한 자각이 뒤엉켜 드러나는 내적 갈등의 표면적 표출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결과와는(노승미, 2002; 정경순, 2008) 차이가 있다. 뱃속 아기가 살아 숨 쉬는 생명이라는 자각은 비록 이들이 그것을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의식화하지 못하더라도 임신 인지, 대처 과정 속에서 이미 모성이 출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미혼모들은 임신, 출산 기간 동안 아기에 의해 육화된 삶을 통해 모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입양결정 과정 속에서 최적의 입양 조건을 탐색하거나 입양이 잘못 될 수 있다는 모성 불안감 등과 같이 모성을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입양결정 과정은 모성의 밀어냄과 끌어안음의 이중성이 얽히고설킨 역동적 선택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혼모의 입양선택이 모성 거부나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연구(서정애, 2009)와 상반되며, 이것은 미혼모의 입양결정 행위가 단지 모성 거부, 모성 포기라는 이차원적 해석을 넘어 모성 실현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기존 연구결과(김혜선·김은하, 2006)에 대해서도 그것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셋째, 미혼모들은 임신 인지 단계에서부터 사회적으로 각인된 부정적 시선을 내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임신과 뱃속 생명 자체에 대해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회가 부여한 삶의 논리와 규범아래 자신의 임신, 출산 상황을 인식하였고, 이것은 자신의 임신 현실을 억압하는 심리 내적 균열감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감은 입양을 향해 내달리는 심리적 기제를 추동하거나, 경제적 부담, 자기 장래에 대한 우선적 고려, 현실적 양육조건 참작, 좋은 엄마 자격 등 입양 선택의 구체적인 이유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입양결정 미혼모가 양육 미혼모에 비해 좀 더 질 높은 양육환경 같은 사회적 여건을 더 중시하는 조건적 양육가치관을 지닌다는 연구결과(김혜영 외, 2009)와 유사하다. 또한 미혼모들이 임신 인지 이후 혼전 임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낙인을 두려워해 주변으로부터 소외되며, 임신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를 던지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 한다(이현주·송진아,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자신의 임신 상황을 억압함으로써, 심각한 신체적 건강문제, 정신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 연구 참여자 중에는 임신 기간 중 발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임신 중 함부로 한 행동에 대한 자책으로 아기에게 죄책감을 갖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임신 인지 시기부터 자신의 임신 상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미혼모의 건강한 임신생활과 출산을 돕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혼모들이 입양을 결단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고도의 긴장을 감내해야 하는 충격적 사건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입양결정 이후 상실감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죄책감, 우울, 슬픔, 깊은 미안함 등 다양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양결정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것을 일종의 성장 경험으로 바라보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편견에 대해 항변하려는 방어적 태도를 함께 견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입양결정이 죄책감, 죄의식,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이명순·박주현, 2008; 최승희, 2008) 다소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입양결정 경험은 자녀 상실로 인한 정서적 손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선과 사회의 부정적 편견에 대해 자신들을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입양결정 미혼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인지 단계에서부터 미혼모의 모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심리상담, 정보제공, 모성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미혼모들은 사회적 낙인감과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태아 존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낙태 압력을 받는다. 때문에 의료기관의 임신 진단 과정에서부터 뱃속 아기의 생명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담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에서는 이들을 둘러싼 주변 체계의 낙태 압력, 임신 현실에 대한 미혼모 자신의 심리적 저항감에도 불구하고, 뱃속 생명을 지켜낸 모성에 대한 인정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태동과 같이 태아가 보내는 신호에 미혼모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기와 긍정적으로 상호 교감할 수 있는 모성교육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미혼모의 임신, 출산, 입양경험 자체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도록 돕는 의미치료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심층면담을 위해 연구자들과 몇 번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힘든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해지거나 치유가 되는 느낌이라고 구술하였다.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기회를 갖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성찰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미혼모가 자신의 임신, 출산, 입양경험을 불안, 좌절, 죄의식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삶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미혼모의 상실감 회복을 돕고, 사회적 편견에 대해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입양 미혼모들은 아기 상실로 인한 급격한 정서적 변화와 위기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상실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입양 후 슬픔을 표현한 미혼모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슬픔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최승희, 2008: 221)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편견에 대한 항변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설에서의 자조집단 구성을 통해 사회문화적 시선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시설간 연계를 통해 미혼모 집단의 역량강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당사자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에 기반

하여 미혼모의 임신, 출산, 입양의 전체적 과정 속에서 사회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문제를 소외시켜 버리거나, 다시 그것에 실존적 의미를 부여해 가는 경험 전반을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개정입양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입양숙려제도 아래, 7일간의 의무적 모성 양육을 경험한 입양결정 미혼모들의 역동적 목소리는 담보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입양숙려제도 도입 이후,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의 입양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은숙·김은나·이숙자, 2010, “미혼모의 아기장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계간 사회복지』, 겨울호: 106-127.
- 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순·김은영, 2008, “청소년 미혼모 현장조사연구를 통한 사회적 지원프로그램”,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삶과 미래』,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 김인숙, 2011, “근거이론의 분기: Glaser와 Strauss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51-380.
- 김진숙·이근무·이혁구, 2011, “도박자 배우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사회복지연구』, 42(1): 83-115.
- 김혜선·김은하, 2006, “미혼 양육모의 양육 결정 체험”, 『한국사회복지학』, 58(1): 373-393.
- 김혜영·이미정·홍승아·안상수·선보영, 2009,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미혼모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 2009, 『미혼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노승미, 2002, “미혼모가 된 과정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영주, 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충래·김원희, 2004, “시설거주 미혼모의 입양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7: 49-79.
- 박숙희, 2001, “미혼모의 아동 양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애, 2009, “십대여성의 임신과 ‘모성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미현, 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순·박주현, 2008,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187-205.
- 이명희, 2007,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경험”,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정, 2008,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제 47차 여성정책포럼-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0,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 『제 60차 여성정책포럼-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문미경·이미화·김은지·주유선·유순도·황민숙·김은애, 20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기능화에 따른 운영모델 재정립 등 연구』, 여성가족부.

- 이현주, 2011,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검증 및 아기 장래 결정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연구: Lazarus and Folkman의 Stress-Coping -Adaptation model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주·송진아, 2011,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중단과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57-83.
- 정경순, 2008,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 『아동간호학회지』, 14(2): 186-194.
- 진권장, 1999, “교육경험의 의미에 관한 해석학적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2(1): 123-169.
- 최경화, 2006, “양육미혼모의 삶의 과정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승원·현소혜·문영희·이호용·양승미·최윤영·양승미, 2011, 『입양특례법 등 아동복지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승희, 2004,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고찰: 미혼모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8: 77-93.
- _____, 2008, “입양으로 자녀를 상실한 미혼모들의 슬픔 연구”, 『사회복지연구』, 36: 203-225.
- 통계청, 2008, “2008년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
- 한영주, 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노충래·허소영·조수민, 2005, 『미혼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Donnelly, B. W., and Voydanoff, P., 1991, “Factor associated with releasing for adoption among adolescent mother”, *Family Relation*, 40(4): 404-410.
- Glaser, B., and Strauss, A., 1967, *Discovery of Ground Theory-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Y: Aldine Publishing.
- Rennie, D. L., 1998, “Grounded theory methodology: The pressing need for a coherent logic of justification”, *Theory and Psychology*, 8(1): 101-119.
- _____, 200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s methodical hermeneutics: Reconciling realism and relativism”, *Theory and Psychology*, 10(4): 481-502.
- _____, 2006, “Embodied categorizing in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ory and Psychology*, 16(4): 483-503.
- _____, 2007, “Methodical hermeneutics and humanistic psychology”, *The Humanistic Psychologist*, 35(1): 1-14.
- Strauss, A., and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
- _____,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CA: Sage Publication.

A Study of Adoption Decision Process of Non-married Mothers -Hermeneutic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pproach-

Lim, Haeyoung

(Sungkyunkwan University)

Lee, Hyukkoo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pplied hermeneutic grounded theory suggested by Rennie to understand general meaning of adoption decision process of 7 non-married mothers. At the end of the analysis, 191 meaning units, 46 subcategories, and 11 hermeneutic categories were constructed. The core category that threads throughout the adoption decision process was represented as “living with a scar left by the duality of motherhood; repudiating and embracing.” The adoption decision process emerged as recognition of pregnancy, avoidance of reality, searching for adoption, escalation of confusion, determination and rationalization or forfeiture. Based upon our research, we suggested that the adoption decision process of non-married mother was another way of practicing motherhood, and we proposed that we need to develop a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to improve the lives of non-married mothers.

Key words: Non-married mother, Adoption Decision Process, Hermeneutic grounded theory, Motherhood Practic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논문 접수일 : 13. 04. 19, 심사일 : 13. 04. 29, 게재 확정일 : 13. 06. 11]

임해영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전공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관심분야는 여성복지, 질적연구, 종교사회복지임.
E-mail: hae0629@dongguk.edu

이혁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주요 논문으로 “도박자 배우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사회복지연구』, 42(1), 2011, 공저), “노인도박자들의 생애사 연구”(『한국가족복지학』, 30, 2011,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질적연구방법, 사회복지윤리와철학임.
E-mail: leehk@skku.edu

양영자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 -재독한인노동이주자 인터뷰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5(1), 2013), “생애사적 사례 재구성-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사례를 중심으로-”(『비판사회정책』, 37, 2012), “이주여성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재독한인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4(2), 2012, 공저),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이(주)민 연구, 질적 연구임.
E-mail: alter@kyungnam.ac.kr

진혜민

대구한의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최근의 주요논문으로는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청소년복지연구』, 14(2), 2012, 공저), “학교적응유연성척도의 요인구조 분석”(『학교사회복지』, 24, 2013, 공저),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청소년복지연구』, 13(2), 2011,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아동·청소년복지, 학교사회복지, 메타분석연구임.
E-mail: jhm0201@hanmail.net

박병선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근의 주요논문으로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 사정 및 성과 척도개발”(『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2013, 공저), “학교적응유연성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학교사회복지』, 24,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정신보건, 청소년 복지, 척도의 개발과 활용임.
E-mail : bspark@uu.ac.kr

이성대

한국국제대학교 사회서비스학과 박사. 최근 주요 논문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청소년복지연구』, 15(2), 2013),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탈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사회과학연구』, 29(1), 2013), “사이버불링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청소년문화포럼』, 33, 2013),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연구방법론임.
E-mail: event-sd@hanmail.net

염동문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근 주요 논문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장애와 고용』, 23(1), 2013), “CART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21(1), 2013),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지원을 통한 직무만족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재활복지』, 17(1), 2013) 등이 있음. 주요관심 분야는 장애인복지, 연구방법론임.
E-mail: ksitv@hanmail.net